News Review
● 정부 · 단체 ●

조달청 비축물자 골판지원지 공동구매 활성화
1회전 소요비용 3.2%, 3차분 36억원 신청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로 지정된 골판지원지에 대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공동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되고 있는 3차분(3, 4월 소요분)계약이 체결되었다.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계 소요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한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산업의 집중지원 정책 일환으로 지정고시되어 운영하고 있는 골판지원지인 라이너와 골심지를 골판지포장업계에 공동구매 방출하고 있는데, 96년도 부터 기본금리를 연리 6%에서 5%로, 행정 수수료 1회전(6개월) 1.0%에서 0.3%로 인하시켜, 중소 골판지포장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골판지포장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골판지원지를 공동구매하고 있으며, 2개월 단위로 소요물량의 방출신청을 하고 있으며, 금번 3차 방출신청에서는 14,560 M/T, 금액으로는 36억원을 신청한바 있으며, 금리 및 수수료의 인하를 감안하면 향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축자금 활용 골판지원지 공동구매 사업개요 및 계약내용

① 지원자금의 종류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조달물자 공동구매물품 구매지원 비축자금

② 계약기간 : 2개월 간격으로 실시

③ 지원자금의 규모 :96년분 120억원(국산 원지 및 수입원지)단, 사정에 따라 증액가능

④ 금리등 총금융 비용 : 연리 기본금리 5%+정부행정비용 0.3%(1회전)+조합행정비용 0.5% 계 3.3%(1회전)

⑤ 자금지원 절차 : 현재 조합원 기업체가 구입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원지업체와 현재 구입하고 있는 기존 원지 거래방식과 대차가 없으며, 다만 골판지포장조합이 구매 희망수량 요청과 물품인수 계약조건에 대하여 조달청과 조합간에 약정을 하고, 조달청과 원지업자간 입찰로 계약하는 절차로 하며, 물품대금결제는 조달청장이 조달기금에 의해 물품납품 즉시 지급하는 제도임

⑥ 실수요자인 골판지 포장업자는 물품대금과 외상기간만료 수수료, 이자를 포함한 구입물품 금액에 대한 물품인수 및 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전 제출

°은행지급 보증 :
(현금가+이자)×101% :
외상기간 만료일

°보증어음(신용보증기금, 단자회사):(현금가+이자)×101%: 10일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대한 · 한국보증보험등): (현금가+이자)×101% : 상동+30일 이상

⑦ 실수요자인 골판지포장업자는 입고된 물품을 검수하고, 원지공급자에게 조달청장으로 부터 물품대금 입금되는 익일로 부터 6개월간을 외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상기간 만료시 물품외상대금 상환결제

⑧ 골판지원지 낙찰, 공급자에 대한 조달청의 대금결제일은 수입품은 선적서류 확인후 즉시, 국산품은 검수입고 확인후 즉시

⑨ 구매 · 납품절차는 입찰 절차외 현행 조합의 원지 공동구매 절차와 동일함

ISWPC 세계대회 한국유치
펄프 종이학회, 조직위원회 구성 개최 준비

한국 펄프종이공학회(회장 신동소)는 1999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ISWPC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ISWPC는 목재, 펄프화학, 종이화학을 중심으로 2년마다 북미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아시아주로 번갈아 가며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국내 개최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제지 기술전반, 고지탈묵, 종이보존, 펄프학 및 목재분야에 주제를 설정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 펄프 종이공학회에서는 그동안 수년전부터 유치를 희망하여 왔으나, 금번 ISWPC 1995년 6월8일 헬싱키 이사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 제지 산업의 국제적 위상 정립과 우리나라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동 학회에서는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위원장에 신동소(서울대 교수), 학술위원장 윤병호(강원대 교수), 기획위원장 전 량(충남대 교수), 재무 위원장 윤종석 (영일기계 대표)를 선임하고, 차질없는 대회 준비작업에 들어가고있다.

『담합추정』 행위 제재조치
공정위, 가격 인상등의 담합 행위에 적용

지난 2월 15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가격인상이나, 각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명백히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만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추정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현대산업, 금성사등 5개업체가 공정거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추정만으로도 담합으로 볼수 있다.』고 이들 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통신을 비롯한 이들 5개사는 지난 94년 8월 조달청이 실시한 개인용 컴퓨터(PC)구매 입찰 에서 입찰가격과 물량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여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96년 물류개선 시행계획 확정발표
물류표준마크제 도입등 규격화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5년동안 해마다 50만개씩 총 2백50만개의 표준팰릿을 국내업체에 보급하는 등 96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또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해 물류표준마크제를 도입, 이 마크를 취득한 시설·장비 또는 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 세제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입화물외에 국내화물도 컨테이너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통해 인력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일관 수송체제를 갖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물류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이 계획에 의하면 세계 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하주와 물류사업자들이 팰릿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팰릿 풀(pool)시스템 조기 구축 및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 방안으로 표준 팰릿(가로 1100mm)을 매년 50만개씩 관련업체들에게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물류표준마크 도입을 골자로한 물류표준지침서를 제정, 물류표준화와 관련된 제반기준을 제도화해, 수송용 규격포장사용시 운임요금을 할인해 주는등 각종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의왕대륙 컨테이너기지, 충북 청원일대 중부권, 전남 장성일대 호남권 복합 화물터미널등 지역거점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 면허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6개 업종을 2~3개로 단순화하는 한편, 운임 신고제를 폐지해 운임책정을 실질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총 3천 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육·해·공로 물류업무를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중 민간 전담사업자를 지정, 연말부터 물류정보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각 지역별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 개최
신임 이사장 순방겸 96 포장공업 정책 설명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은 96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역별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 겸 96년도 정책 설명회를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개최되는 지역별 협의회는 신임 류종우 동조합 이사장의 각 지역 순방을 겸하여, 96년도 골판지포장공업 정책설명회 개최 계획에 따른것이다.

순방 첫회의는 3월 15일 16:00 부산·경남지역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를 동래관광호텔 특설회의실에서 개최하고, 3월 16일 10:30에는 대구·경북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를 대구 화원 소재 이지역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골판지포장공업 부산·경남협의회 회장은 삼홍포장(주) 손창덕 대표이사가, 대구·경북협의회 회장은 문화포장 남기철 대표가 맡고있다.

한편 대구·경북지구 골판지포장업계는 이 지역 골판지포장업체간에 경영·기술 교류의 활성화와 업체간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골판지상자의 공동판매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 협의회 사무실(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대리 125-5)을 개설하고, 동일 14:00에 개소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전라지역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와 경인지구 골판지포장공업 경영협의회도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포장협회 신임회장 임동준 (삼민화학공업(주)대표) 선출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에서는 지난 96. 2. 26일 서울팔레스호텔 라일락룸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어 열린 임원선출에서는 한용교 회장의 사임에 따라, 삼민화학공업(주) 임동준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임동준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포장산업의 중흥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 등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산재한 과제를 풀어나가 포장업계의 이익대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동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단 및 이사·감사는 다음과 같다.

기협파이낸스 이용 활발
어음 할인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협중앙회와 전경련등이 공동출자로 지난해 12월 20일 설립된 기협파이낸스(대표 송한청)가 영업 1개월만에 자본금(290억원)을 초과하는 이용실적을 나타냈다.

기협파인낸스는 개업식 이후 1개월 동안에 어음할인 실적 총323건 366억 7천 8백만원의 영업실적을 나타냈으며, 중소기업이 물품납품 혹은 용역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을 기일전에 현금화 시켜주는 일을 주업무로 하며, 기술수준 및 생산성, 부가가치가 높고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강한 기업을 우대하며, 96년도 금융잔액 목표를 3천억원으로 잡고 97년부터는 금융잔액을 매년 3천억원씩 늘려 2000년에는 1조 5천억원으로 증가 시킬 계획이다.

한국포장협회 신임 회장단 및 이사·감사

직위별 가나다 순

번호	협회직명	성 명	회 사 명 및 직 위		비고
1	회 장	임동준	삼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신 임
2	부회장	구용희	기린화학(주)	대표이사	신 임
3	부회장	방대엽	(주) 한일실업	대표이사	신 임
4	부회장	손일권	롯데알미늄(주)	대표이사	신 임
5	부회장	한규상	율촌화학(주)	대표이사	신 임
6	이 사	권태문	(주) 팔기	대표이사	신 임
7	이 사	김치상	(주)현대산업	대표이사	유 임
8	이 사	박복순	공성기업	대 표	신 임
9	이 사	박영식	(주)삼성잉크	대표이사	유 임
10	이 사	신동수	유상공압(주)	대표이사	유 임
11	이 사	신동호	성안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신 임
12	이 사	윤영욱	(주)선양	대표이사	유 임
13	이 사	이한상	삼진화학(주)	대표이사	유 임
14	이 사	장용균	(주)SKC	대표이사	유 임
15	감 사	김선창	남경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유 임
16	감 사	김창덕	유진화공(주)	대표이사	유 임

환경부, 재활용 산업 지원확대 폐기물 자원화 촉진 기대

환경부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재활용 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3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융자지원액 1백90억원에 비해 58%(1백10억원) 늘어난 것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6.5%,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융자대상은 재활용시설(중간가공시설 포함)설치자 또는 재활용기술연구·개발자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2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과 관련, 재활용 업체 신청순위에 따라 자원재생공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융자 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기반 구축이 용이해짐은 물론 폐기물 재활용 촉진으로 단순매립 소각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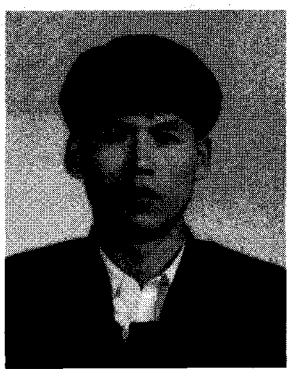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주관 업종별 협의회 구성 참여기업에 각종 지원 우대 검토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업종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업종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업종별 협동조합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생산품목등을 고려하여 주요 조합원사 임원 10~20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 동향분석과 애로사항을 발굴·건의 함으로써 업종별 지원시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청의 각종 회의 등에 업계 대표를 참석시키고, 통산부, 중진공 등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시 평점가점 등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골판지포장업계의 협의회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조속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물류학회 학술세미나 3월 21일, 물류인대상 및 자랑스런 포장인상 시상

한국물류학회(회장 옥선종)는 3월 21일 제3회 물류인 대상및 1996년도 상반기 학술 세미나를 한국종합 전시장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한국무역협회가 협찬한 동 학회세미나 및 물류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물류업계에 공적이 큰 인사에게 물류인 대상과 자랑스런 물류인상을 시상하는데, 제3회 물류인 대상에는 한화유통 가갑손 대표이사가, 제1회 자랑스런 물류인 상 중 수송인 상 부문에 일양 익스프레스 추동회 상무이사, 하역인 상은 세방기업 김성원 차장, 보관인 상은 한화유통 김만영부장, 유통인 상은 금강개발 황병국 차장, 포장인상엔 한선 심남식 과장, 물류정보인 상엔 한국 레지폰 시스템 이부경 대표이사, 물류학술인 상엔 한국방송통신대 문상원 교수가 수상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제3회 물류인대상
포장인 상 수상
(주) 한 선 심남식 과장

동 행사는 물류인 상 시상식에 이어 문상원 교수의 유통업체의 구매,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 리드타임 중요성과 이의 혁신방안, 한화유통의 김만영 부장의 유통산업의 수·배송 개선안 및 사례연구가 발표된다.

한편 포장인 상으로 수상하는 (주) 한선 심남식 과장은 14년여간 골판지 포장 제조업체인 (주)한선에 근무하면서 비닐라미네이팅 대체 방습코팅 소재 개발과 자동리벳팅 기계개발에 참여하는 등 창의력과 근면성을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News Review
●업계동향●

욱일기계, 유일산업 합병
자동 톰슨기 제작분야 주도 전망

변형 골판지상자 제조용 자동 톰슨기(Tompson) 전문 제조업체인 욱일기계와 유일산업이 경영합리화 및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합병하였다.

욱일기계와 유일산업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통합 작업을 마무리짓고 최근 (주)욱일기계라는 이름의 법인을 출범 시켰다. 새로 출범한 (주)욱일기계의 자본금 규모는 1억원이고, 대표이사 사장은 조정욱 욱일기계 사장이, 임영현 유일산업 사장은 전무이사를 맡게 되었으며, 시설 근대화와 확장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금명간 대폭적인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사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최근 골판지포장시장의 소포장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패턴에 부응한 변형상자 수요 팽창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산설비 및 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욱일기계는 기존 양 업체의 생산설비외에 경북 칠곡에 대지 1천평, 건평 4백평 규모의 새로운 자동 톰슨기 공장을 준공하여 오는 5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총서 골판지포장조합 이사장 보선
삼보판지공업 (주) 류종우 대표이사 선임
제6회 골판지포장대상 시상식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96년 2월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9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보선과 감사 선출이 있었는데, 신임 이사장에는 삼보판지공업 주식회사 류종우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결원된 3명의 이사에는 주식회사 광신판지 양한석 대표이사, 부평판지주식회사 전수장 대표이사와 제일산업 주식회사 박무호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사장의 보선은 작년 95년도 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세번째 연임한 유현기 이사장 (주식회사 광신판지 회장)의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따라 이루어 졌으며, 이사 결원은 이사 두분이 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다.

한편 임기 만료된 두분 감사에는 한강판지공업주식회사 공재학 대표이사가 연임되었으며, 주식회사 창신의 이규명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이사장 및 이사는 제5대 잔여 임기 2년간 재임하게 된다. 신임 류이사장은 당선 인사에서 「그동안 업계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신 전임 이사장님, 임원 및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표명하고 「가일층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계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오늘 총

'96년도 골판지포장조합 정기 총회 전경 (96. 2. 26)

회에서 계획된 공동사업의 활성화등을 실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보선에 앞서 95년도 제정 조합 단체규격승인 및 96년도 조합단체규격 품목선정 결의,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정 개정과 9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아울러 확정하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금년 첫 출범한 중소기업청장의 치사를 화학공업과 주대수 과장이, 기협중앙회장의 격려사는 유회윤 부회장이, 중소기업 은행장의 축사를 이희선 무교지점장이 참석하여 해 주셨으며, 제6회 골판지포장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중소기협 중앙회장 상으로 포장공로상 부문은 금성포장공업(주) 박연황 대표이사, 조합이사장 상으로 포장경영상 부문 (주) 산성 박기영 전무이사, 포장기술상 부문 대영포장(주) 이진달 생산과장, 모범포장인상부문 롯데쇼핑(주) 김종오 반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107P 토픽기사 참조)

양영제지(주) 라이너 수출 주력
95년 3,200만불 실적올려

골판지원지중 라이너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양영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가 지난 95년도 홍콩, 베트남,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등에 총 3천 2백만 달러, 수량으로는 7만 3천 M/T의 라이너를 수출했다.

양영제지의 95년도 수출실적은 94년도 6백만 달러에 비하여 5.3배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수출신장세를 나타냈는데, 이처럼 해외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94년도 개발한 『테스트 크라프트 라이너』가 기존 라이너 보다 품질면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0%이상 저렴하여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영제지측에서는 국내 골판지원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등 내수시장 중심으로는 채산성을 맞출수 없기 때문에 올해에도 서남 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 신규진출하는등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세아 골판지포장 전람회
골판지포장조합서 참관단 파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신경영체제의 정립 일환책으로 세계 골판지포장의 신기능, 신소재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업계의 일류화를 도모하고져 아세아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골판지포장 전문 전시인 제1회 '96 아세아 골판지포장 전람회(CORRUGATED ASIA '96)에 참관 시찰단을 파견키로 하고 골판지포장업계 및 연관 산업계를 대상으로 참관단을 모집한다.

동 전람회는 96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세계 유수의 골판지포장 제조 기계회사인 Bobst (SEA) Pte Ltd. Cuir SA, Langston Europe, Marquip, Rapidex, United Container Machinery 등이 출품하며, 국내 제조회사인 일경기계에서도 출품되어 골판지포장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조합에서는 선착순으로 15명 내외의 참관단을 구성하여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파견할 계획이며, 현지 전시회 출품회사의 개별 설명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연락 문의 전화 : 골판지포장조합 정보 출판과 (02)594-0381

골판지포장산업 High Ttech 시대 개막
태림포장공업(주) Robot System 도입
하남공장에 이어 본 공장 전 Line도

태림포장공업(주)는 광주 하남공장의 High Tech 전자동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제상 완정공정 및 시트·상자 반출공정의 수작업성을 타개하는 공정개선에 Robot투입을 계획하여 오다가 우선 광주 하남공장에 (주)LG산전 Robot를 설치하기로 확정 한것으로 알려졌으며, 태림 본공장 전 Line도 Robot화 할것으로 보인다.

골판지산업에 있어 자동화가 가장 뒤지고 있는 완제품의 포장 및 반송, 적재 작업은 어쩔수없이 수작업에서 자동포장 및 Conveyer에 의한 송출방식으로 부분적인 자동화 상태였으나 역시 사람손이 많이가는 마무리 이송 부분의 개선은 Robot도입으로 성공하기에 이른것이다..

구미, 일본등은 87년부터 본격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태림 하남공장이 한국수출포장공업

(주) 안성공장에 이은 전Line자동화의 획을 이루게 되었다.

이어서 삼보판지공업(주), 서륭산업(주), 제일산업등도 Robot도입이 앞당겨져, 바야흐로 골판지포장산업의 High Tech 시대가 펼쳐질것으로 보인다.

신대양제지 시화공장 준공
연산20만 M/T 증설, 총능력 40만M/T

골판지용 골심지 최대생산업체인 신대양제지(대표 권혁홍)가 총 600억원을 투자해 시화공단에 2만3천평대지에 건평8천평 규모의 골심지공장을 준공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연산 20만M/T 의 골심지 및 K 원지등 라이너를 생산할 수있는 설비를 갖추고, 라인길이 250m로 단일생산라인으로는 국내에서 최대규모인 이 공장은 제너럴 일렉트릭, 미스비시등의 외산설비와 국내 설비로 장착되어 있다. 신대양제지측은 이번에 설치한 라인은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40%이상의 인력절감효과와 함께 섬유질의 적절한 균일배열로 30%이상의 강도 향상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공장인 반월공장의 2개 생산라인에서 연간20만M/T의 골심지 생산을 하여왔는데, 이번 공장준공으로 연산능력이 2배가까이 늘어난 40만M/T으로 확대되어 금년매출액을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니콤 종이팰리트 사업진출
제일산업 구미공장에 설치

수출용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주로 생산해온 제일산업(주) (대표이사 박무호)이 대대적인 증설과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종이팰리트, 허니콤골판지 생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일산업(주)는 현재 용인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인해 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어, 최근 경기 화성군지역에 신규 공장부지를 물색하여, 97년 상반기중 가동을 목표로 대지면적 2만평 월1천만m^2의 골판지상자 생산규모의 대대적인 생산설비 증설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 구미공장에 미국 종이팰리트 제조업체로부터 관련설비를 도입 설치하여, 연간 매출 60억원 규모의 종이팰리트 및 허니콤 골판지를 「유니콤」이란 상표로 오는 5월부터 국내에 시판키로 했다.

그동안 골판지포장업계는 포장용도인 골판지상자 이외 새로운 용도의 신수요 창출이 최근 경공업산업의 퇴조에따른 포장시장 성장세 둔화라는 국내 경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효한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따른 지류재 팰리트, 골판지재 가구, 진열장, 건축자재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종이팰리트 및 삼중골판지 생산 본격화
(주)서림, 미국의 S.C.C.와 기술제휴

종이 팰리트 전문제조업체인 (주)서림(대표이사 박성훈)은『CORDECK 4』및 삼중골판지 제품을 본격 생산하면서 제품설명회를 충북 음성공장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 미국 Stone Continer Corroration사와 기존의 목재 팰리트 대체품인 CORDECK 4의 제조기술 및 제조설비에 관한 한국내 독점계약을 맺고 종이 팰리트 기계를 도입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CORDECK 4』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종이 팰리트는 100% 골판지를 소재로하여 1.5Ton의 하중까지 견딜수 있도록 제조되며, 제품이 가볍고 취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함으로 비용이 절감될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금년들어 월 10만개씩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서림의『CORDECK 4』상품명으로 시판되는 종이팰리트의 제품설명회 광경

제14차 Inter Pack. 개최 5. 9- 15. 독일 뒤셀도르프서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인 인터팩이 금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매 3년주기로 열리는 동 전시회는 40여년의 역사를 갖는 세계 최대의 포장전시회로 세계34개국에서 2200여 개사가 출품하며, 전시면적 138,000평방미터(약 42,000평)에 약 200,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시회는 외국업체의 참가율이 50%이상으로 세계시장의 동향과 기술현황을 쉽게 접할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포장관련 업체에서도 큰관심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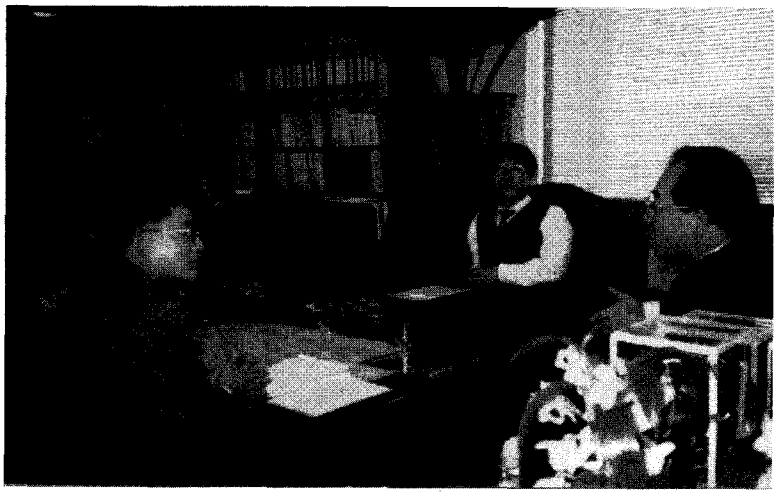
한국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참관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골판지포장조합 류종우 이사장 기자 간담회 정책개발 기획업무에 역점 강조

신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류종우 이사장은 2월 29일 15시에 동조합 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기자 간담회에서 류이사장은 업계간 협력과 공동구판매 사업의 강화 및 대정부 정책기능의 활성화등에 역점을 두고, 골판지포장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골판지포장업계 종사자 및 농산물 포장 수요자인 농어민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업계 차원에서 풀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조합은 정책개발 기획업무에 중점을 두어 업계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임소견을 밝혔다.

류이사장은 이어서 3월 4일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국제 디자인대학원 개원식 행사, 통산산업부,중기청 및 관련단체, 업계에 신임인사를 마치고, 3월 8일 IPP '96(제3회 국제 포장재 및 포장기술전)개막식과 3월 15일, 16일에는 부산·경남, 대구·경북지구를 순방,지역별 골판지포장공업 협의회의 개최와 96년도 골판지포장 산업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류이사장의 기자 간담회 광경
참석출입기자: 내외경제 권영일기자, 매일경제 이기동기자, 서울경제 정구영기자,중앙일보 고윤희기자, 한국경제 김낙훈기자

지함조합 이사장 이대길사장 유임 96년은 자생력 확립의 해 설정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제 8 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여의도 63빌딩 57층 백리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9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등 6개 의안이 상정 처리되었는데, 이사장 선출건은 이대길 이사장의 단독출마로 만장일치 재 추대되어 새로 선출된 10개사 신임이사등과 함께 제4기 지함업계를 이끌게 되었다.

아울러 영풍수출포장 배범수 사장이 조합고문으로 추대되어, 어윤배 숭실대 교수와 함께 조합운영 및 경영지도 정책자문등을 맡게된다.

한편 총회의안 심의에 앞선 식전행사에서는 '96년도 우수경영인 및 모범관리자 표창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장학생 선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IPP'96 국제 포장재 전시회 개막 3.8 -11 15개국 143업체 참가

제3회 국제 포장재 생산 및 포장 공정기술전(IPP'96)이 월간 포장산업과 (주) 경연전람 공동주최로 "신포장 새 환경"이란 슬로건아래 지난 3월 8일부터 11일 까지 4일간 KOEX 별관에서

성황리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5개국 143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포장기계와 소재를 선보이고, 포장재 생산에서 부터 포장공정까지를 소개함으로서 포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정보교류의 장이라고 평가 받았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이 부스참여를 하고 대세포장, 장천, 제일산업, 태림포장, 창신 등 조합원사의 골판지상자와 카다록을 전시 하였으며, 조합이 주최하는 (1996.6.10 - 6.13) 제 1 회 국제 골판지포장 · 지가공 · 물류전 (Corrw.PACK.Korea '96)을 일반 내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제3회 국제 포장재 및 포장 기술전(IPP'96)개막식 광경

터어키 인쇄포장협회 대표단 방한 영신기계(주) 자동톰슨기 상담 성과 커

터어키 인쇄포장협회(KASAD) 대표단 일행이 지난 3월 7일부터 10일 4일간 영신기계(주) (대표이사 이태호)의 초청으로 방한 하였다.

터어키 이스탄블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5 도인쇄기 및 4 Units 이상의 Bobst 자동톰슨기 등을 갖춘 현장요원 200명이상 규모의 회사들로 구성된 카사드(KASAD)그룹은 지난 95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IPACK 95라는 전시회에 영신기계(주)가 참여, 자동톰슨기 등을 전시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동기종의 계약상담과 EU시장 가입을 앞에두고 영신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터어키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목적으로 내한하였다.

영신기계(주)에 따르면 이번 상담을 통하여 자동톰슨기 8대, 반자동 톰슨기 3대등 총15대의 계약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금년말까지 순차적으로 LC를 개설 수출키로 하였으며, 터어키가 EU시장의 가입을 앞에 두고 있어 양 업계간 유럽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위하여 영신기계(주)및 KASAD의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人事動靜】

⊙ 동방기업(주)

정 삼 이사 ⇒ 상 무

조형철 차장 ⇒ 경리과 부장

⊙ 조일제지(주)

이동우 차장 ⇒ 부 장

한민수 과장 ⇒ 차장

이기완 대리 ⇒ 과장

⊙ 동양제지공업(주)

최원섭 부장 ⇒ 이 사

【상호변경】

⊙ 화성기계공업사 ⇒ 화성기계공업(주)

【합 병】

⊙ 욱일기계 + 유일산업 합병 ⇒ (주) 욱일기계

【전화번호변경 안내】

⊙ (주)한국교역

(○2)552-3877-9

⇒(02)3473-3877-9, 719-6480-2

F)(02)3472-6601